

노원구, 재건축 기대감 ↑... 4.5억 오른 '배짱매물' 속속

지역 내 중저가 재건축 단지 밀집 토지거래허가구역 벗어나 풍선효과 상계주공 32㎡, 올해 4000만원 ↑ 재건축 진행되며 고가매물 증가세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간 상계주공3단지 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긴 이른 바 '배짱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이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달 30일 기준 지역별 가격 상승폭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0.28%로 가장 크게 올랐다. 그 뒤는 ▲구

로(0.20%) ▲금천(0.18%) ▲도봉(0.15%) ▲강남(0.14%) ▲성북(0.14%) ▲강북(0.12%) ▲양천(0.12%) ▲영등포(0.12%) 등이었다.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32㎡는 지난 3월 5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초 4억8000만원, 3월 5억원에 팔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 전용면적 68㎡가 9억원의 배짱매물이 나왔다.

이밖에 3단지 전용면적 84㎡가 10억을 넘긴 11억원, 59㎡는 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전용 84㎡의 경우 지난 2월 6억5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가 4억5000만원 올랐다.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가 8억7000만원, 장미아파트는 전용 59㎡가 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류를 타는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고가의 매물을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하며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상계주공1단지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마쳤다. 상계동 보람아파트도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자금 모금을 시작했으며 상계주공3단지는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 자금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완료했다. 한양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역시 지난달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편 지난 달 서울시 시장 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집계하는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서울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7.5다. 지난해 12월(114.6)보다 2.9포인트(p) 올라, 지난해 말 대비 상승률 2.5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의 상승률은 절반 수준인 1.53%에 그쳤다. 이 밖에 연령별 상승률은 ▲5년 초과~10년 이하 1.4% ▲10년 초과~15년 이하 1.96% ▲15년 초과~20년 이하 1.94%로 집계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며 '배짱매물'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안군 공고 제2021-528호

무안 군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무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무 안 군 수

1.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조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	10	국지 도로	200	중로 1-903	청계리 546-3	진입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0	· 신설 - L=200m, B=10m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일원	-	증)46,567	46,567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면적: 46,567㎡	· 기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도면 : 재제생략

3. 시행자 : (주)동양환경

4. 공람 장소 및 기간 • 기 간 : 2021. 5. 6. ~ 2021. 5. 20. (14일간) • 장 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 열람 기간 내 • 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주소	
합 계 (14필지)				49,684	46,567	-	-		
1	청계면	청계리	515-1	잡	1,078	90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2	"	"	515-2	임	463	463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3	"	"	516	잡	6,717	6,717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4	"	"	517-1	잡	573	573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5	"	"	518	잡	942	942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6	"	"	519	창	2,143	2,004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7	"	"	546-4	잡	9,265	9,26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8	"	"	546-7	잡	4,479	4,47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9	"	"	546-8	장	375	37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0	"	"	805-1	잡	560	556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1	"	"	산9-5	임	397	344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2	"	"	산13-1	임	15,567	12,81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3	"	"	산38-1	임	659	65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4	"	"	산38-11	임	6,466	6,466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나.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비고
				대 장	편입		주소	주소	
합 계 (5필지)				16,252	1,930	-	-		
1	청계면	청계리	332-1	도	275	213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2	"	"	546-3	도	1,126	540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3	"	"	산38-3	수	530	112	무안군	-	
4	"	"	산38-8	임	13,098	471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5	"	"	산38-10	임	1,223	594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코트라, 의료·IT기업 러시아 진출 지원

한-러 글로벌 파트너링 화상상담

참여해 국내기업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KOTRA(코트라)가 국내 제약·IT업체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코트라가 '한-러글로벌파트너링화상상담 주간' 행사를 열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와 정보통신(IT) 분야의 러시아 대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강소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나선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러시아 최대 유선 통신사 로스텔레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통신망 '아틀라스' 구축과 관련, 국내 통신장비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로스텔레콤은 러시아 영토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러시아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1위 유선 통신사 로스텔레콤을 비롯해 의료 분야 대표기업 5개사 등 러시아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참가한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러시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렌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센터를 통해 로봇, 증강현실(AR) 등 분야의 국내기업과 기술협력을 논의한다.

의료 분야 러시아 기업들은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10개사와 ▲완제품과 원료 수입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을 협의한다.

의료와 정보통신은 러시아 시장 진출 유망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제약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76억달러로, 전체 수입 품목 중 점유율 4위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세계 43개국으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러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제약사 4위로 꼽히는 아크리힌은 코로나19사태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한국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암센터 신규 건축 등 의료 인프라 개선에 146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의료기기와 설비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관심동맥 분야 국립병원의 독점 의료기기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스텐텍스도 이번 행사에

/양성운 기자 ysw@